

그는 솔직하다. 그러한 성격과 좀 굵은 듯한 손목과 목소리 등에 그의 남성적 잔재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성에 관한 문제마저도 전혀 숨기거나 말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를 도덕적 타락 또는 윤리의식이 결핍된 사람의 인격적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석연찮은 점도 있다. 여러 남자들과 대수롭지 않게 벌인다는 성행위가 단순히 쾌락이나 돈의 추구는 아닌 듯하다. 성전환 수술 이전에도 그랬듯이, 오히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여자로서 성적으로 남자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그것은 성에 관한 새로운 의식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의사 선생님이 질을 너무 좋게 만들어 주어서 아직까지 삽입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때금씩 갖는 남자들과 의섹스도 오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감이 아니라 정신적

인 만족감이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혐오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모이면 수다 떨고 어제 만난 남자 얘기해요”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방안을 찬찬히 둘러 보았다. 벽 안쪽에 세워져 있는 작은 간이 책꽂이에는 시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상과 한용운, 릴케와 바이런, 그리고 논어와 대학과 중용도 있었다. 이런 풍경도 처음에는 나를 당혹하게 했던 요소였으나, 이제는 이런 풍경들과 그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내가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성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 혹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졌던 당혹감 같은 것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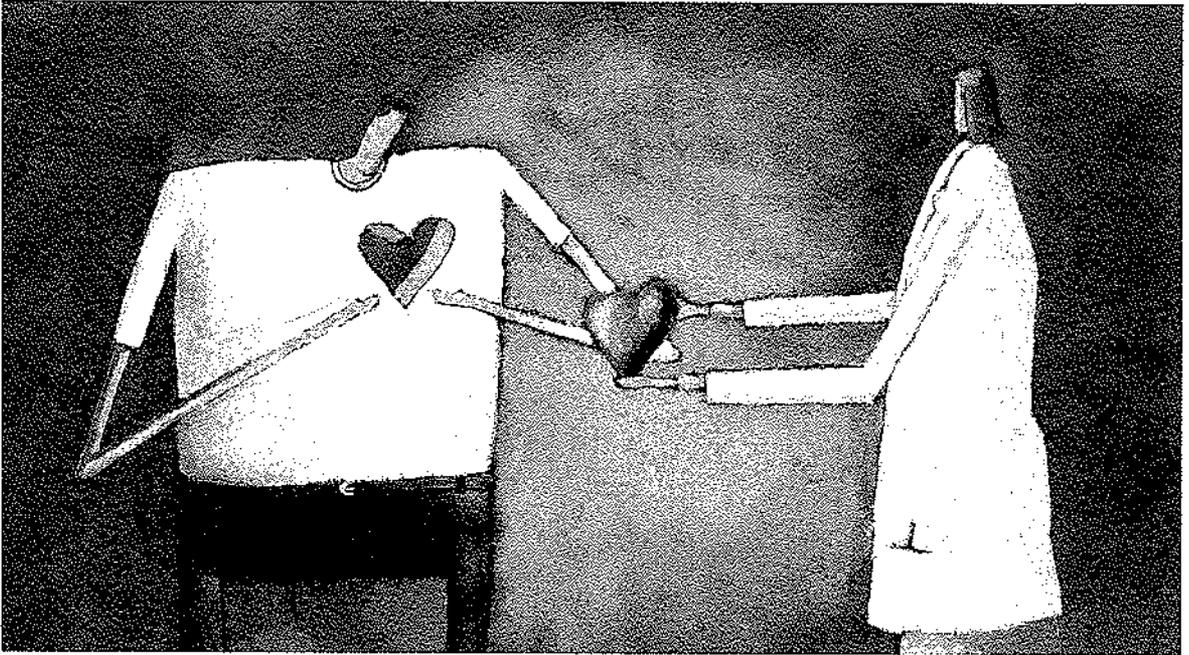
잠시 후 그는 그의 '친정식구' 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그는 자신과 같은 부류인 제이를 자기들끼리는 '복알',

전생에 여자였던 사람(2)

우리 사회가 가진 성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이 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글은 개인적 자유, 1991년 여름호에 실린 글이다. 15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여러면에서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호적 성별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성적소수자인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글 | 김 용 교 · 시인 문학평론가 · 와세다대학 문학부 교수





‘갈보’, ‘오까마’ 라는 은어로 부르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그가 대구, 광주, 부산, 이태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파악한 게이 수호의 수호가 칠백 명이 넘고, 정상적인 수술이나 ‘아메’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호만도 사백 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은폐된 곳에 그러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지? 어느 통계는 만 명에 한명 꼴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그마치 사천 명!

그는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 버리려는 듯이 활짝 웃는다. 그리고 앨범을 꺼내 펼쳐 보았다. 남자였을 때의 사진은 다 태워 버리고, 한 장 남은 백일 때의 사진도 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앨범에는 업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멋진 모습이나 여행지에서 찍은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더러는 짧은 속옷만 입었거나 속이 비치는 잠옷만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건 사진을 통해 자신이 여성임을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은 심리의 발현이 아닐지.

“대부분이 가라오케에서 일하거나 바텐더로 있거나 쇼의 무용수로 일하나, 뒤편처럼 디스코 걸 노릇을 하면서 살죠.”

그가 살아 온 여정과, 그와 동류항에 속하는 게이들의 삶이 거의 유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신의 실수나 저주로 밀쳐 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정과 사회의 이지러진 틈바구니에 끼인 어린 혼이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의 경우처럼 가정의 불화, 동일시할 대상의 뒤바뀐, 일시적으로 나타난 여성적 편향에 대한 수치심의 강요, 그리고 잔인한 성적 폭행 등에 의한 정신적 외상이 치유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 왜곡이 점차로 심화되어 ‘제3의 성’으로 정착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어린 영혼을 죽이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비인간적인 제도 사회의 희생물처럼,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물처럼 여겨진다. 특히 남성 우위의 자본주의가 여성들에게 요구해 온 가치가 바로 상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이었고, 그것이 성적 수단으로서의 구매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쩌면 게이들과 같은 ‘신기한 소수집단’은 부패한 현재의 자본주의하에서는 희소품으로서 그 상품 가치를 톡톡히 인정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묘한 사실은 그러한 사회의 희생물인 그들의 생존 입지가 바로 그러한 구조적 모순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환락가의 상권을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부류의 신기한 집단들이 쥐게까지 되었다고 한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나오는 게이 역시 신기한 성적 특성을 상품화시켜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 일종의 포스트모던한 사회의 당당한 기생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자면, 게이들 같은 소외 집단의 삶은 인간 생리의 본래적 모순과 부패한 자본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독특하게 결합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집단으로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게이들이 집단화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경우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져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을 독버섯 같은 존재로, 보편적인 윤리 영역에 결코 편입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로 파악한다.

아무튼 이런 사회에 편입되어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미애씨는 자신이 추는 춤에도 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양이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란다. 그래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모이면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내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그는, “여자들 모임하고 똑 같죠. 모임 수다 떨고 어제 만난 남자 얘기하고 남 홍보고... 뭐 그러죠”라며 입을 다문다. 모두들 자기가 원하는 삶을 택해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성격들이 대부분 낙천적이고 명랑하다고 한다. 그런데 나쁜 점으로는 대부분이 이기적이고 뭉치지 못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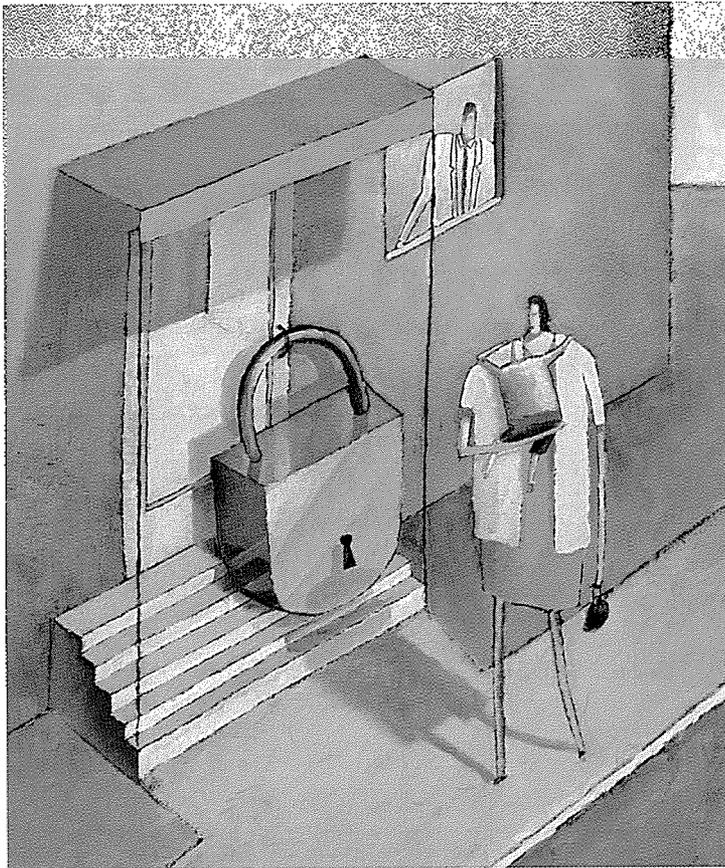
“정치 얘가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여성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서도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린 그저 우리 삶에 만족하고 살 뿐이죠.”

자신들의 현실을 수정해 볼 권리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서 얼마 전 어느 석간신문에 어떤 변호사가, 하늘이 정해준 성을 바꾸는 게이들의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쓴 기사에는 몹시 화를 냈다.

“우리를 동물처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래도 그저 우리 삶에 만족하려고 애쓰죠. 우리도 다른 여성들처럼 직장생활도 하며 밝은 곳에서 뽀뽀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결혼도 하고요.”

1928년 이후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스탈린은 게이, 호모, 레즈비언들을 악의 씨앗으로 보아 러시아의 주요도



시에서 집단으로 체포했다.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그 사회의 지배윤리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거역하는 윤리적 성향이나 정신을 '악의 씨앗'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실제로 그 윤리나 이데올로기 아래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는 대칭적 산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강제와 강압이 판을 쳐 개인의 감정이 여지없이 파괴되는 모순된 사회 구조가 구체화되면 될수록, 그러한 집단의 수효가 늘어날 가능성

은 더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도, 비록 굵어져 바로 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들이 내 형제이고, 내 이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언뜻 앨범 끝에 사진을 안고 웃고 있는 미애씨 사진이 보였다.

“미애씨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럼요.”

고개 숙인 그의 어깨 위로 노랑물을 들인 긴 머리가 버드나무 잎처럼 늘어졌다. 난소가 없어서 성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아이를 가지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얼굴을 수그린 그는 입속말로 들릴 듯 말 듯 짧게 말했다. 그럼요 라고, 진솔한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목소리(나는 이쯤에서 그를 '그녀'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잠시, 말이 없던 그녀는 돌연 장마벌처럼 방긋 웃으며 벨 듯이 말한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곧 결혼할거예요. 남자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선 아무도 저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하려고 해요. 거기는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래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얘기를 들었다. 대단한 남자다.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결혼한 게이가 있다고 물어 보았더니,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얘기만 들었지 만나 본 적은 없단다. 사

“우리를 동물처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요,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그래도 그저 우리 삶에 만족하려고 애쓰죠. 우리도 다른 여성들처럼 직장생활도 하며 밝은 곳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결혼도 하고요.”

실 듣고 보면 게이들의 결혼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호적을 변경한 것도 박미애의 경우가 거의 마지막이었고, 호적을 옮겨도 성전환을 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직이나 결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받아도 '야매'로 받은 경우는 비행기도, 배도 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예비군 훈련을 기피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떳떳하게 살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가령 정신진단서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법적으로 '여자'임을 인정하고, 과거에 남자였다는 기록을 없애 주는 조치이다.

“그럼 저도 여자대학교도 다니고, 사무원도 하고 스투어 디스나 영화배우 같은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술집 일을 좋아서 하겠어요.”

취재를 마치고 박미애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란 문고판 책이 가슴에 아프게 남아 쉬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쁜 웃음을 지으며 수줍게 말한 그녀의 마지막 말도 그렇다.

“참 아무한테도 안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절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어느 날 큰스님한테 제 고민을 얘기 했더니, 글썽 제가 전생에 여자였대요.” (끝)